나는 오래된 미래를 준비한다

오래 전에 주인이 떠나버려 폐허가 된 어느 집을 찾아들어간다. 이름 모를 잡풀이 무성한, 아니, 제각기 이름이 있으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야생초가 무성한 마당을 헤치며 마루로 다가간다. 지붕은 내려 앉아 방바닥에 빗물이 흥건하고 가재도구들이 심란하게 흩어져 있다. 흙과 먼지투성이의 비닐 장판이 애처로운 저 마루에 펼쳐져 있는 저것은 누구의 졸업 앨범일까?
이곳은 거룩한 곳…. 마루의 처마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금색 칠을 올린다. 이것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속도에 밀려 스러져가는 것들에 대한 나의 경배다.
산업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해체하여 개인을 고립시켜서 자본주의에 매혹과 동시에 공포를 느끼는 피동적 소비자로 만든다.
공동체가 형성되어있던 장소를 일단 부수고 새롭게 배치한다. 너희들이 우애와 환대를 나누며 오순도순 살았던 공동체의 기억은 잊어라! 그리고 소비를 즐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노동을 헐값에 내놓아야만 한다. 망각의 정치학은 우리에게 화려하게, 달콤하게, 그리고 겁주며 속삭이다.
예술가는 망각의 정치학에 저항하는 자다. 저항해야만 하는 자다!
혹자는 말하리라. 너희, 예술가 나부랭이가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나 애야…. 무한히 헐값으로 자연과 노동을 착취할 수 있을 것이란 자본의 환상은 곧 깨어지게 되어 있단다.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 나는, 우리 예술가들은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허황된 로맨티스트가 아냐. 알겠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러나 미래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지.
그리고 이 낡은 집, 폐허가 된 집을 경배하는 나의 태도는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로맨틱한 예술가의 제스처가 아니야.
그럼 뭐냐구?
감히 말하건대 우리의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구….
자본과 속도의 무한경쟁 앞에 모든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압축 성장의 후유증이 터질 듯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들이 먼저 앞장서서 꿈을 꾸어줘야 해. 이제 이 치킨 게임을 끝내자구. 속도의 무한경쟁에서 빠져나오자구. 이제 세상은 곧 바뀔 터이니 미리 준비하자구. 자발적 실업자가 되고 사회적 망명자가 되자구….
이제 곧 이 낡은 집이 폐가요 흉물로 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할 것임을 믿고 나는 준비하는 것이다. 기둥에 금칠을 올려 경배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2010. 9. 3 오후 4시 37분 공주 원골에서 김용익